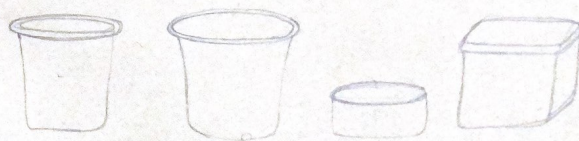


Chapter 1. 식물이 있는 공간

- 식물이 인공기에 미치는 영향
- 식물 식물이 있는 공간
- 식물 기온
- 식물 습도
- 식물의 생장
- 식물과 사람의 상호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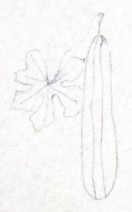
아침 베란다 정원

햇살과 잔잔한 바람이 스며들다...

라이트 필드 샐러드, 2명 미드 나무, 삼색 미드 나무
 ↓
 잎을 잘라 먹어.

· 쿠메인
 → 쿠메인 중계 매개체라 해서 붙은 이름.
 쿠메인이 생두라는 뜻이 담겨 있다.

· 구미이 (부엉이 Cucurbitaceae)
 → 학명: *Luffa aegyptiaca* Miller
 인도에서 태어난 채소.



겉은이 바늘에 구멍이 세로 뚫려서
 먹었을 경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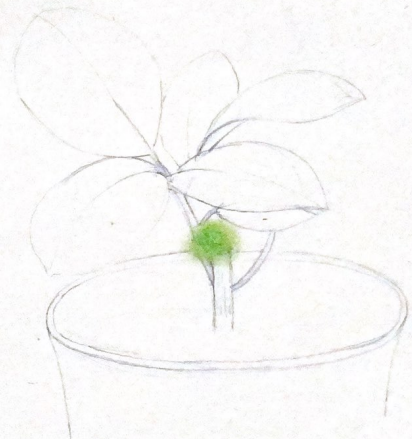


작은 허브가 이미 구멍이 생겼어 쉽게 할까
 라이트 필드 샐러드, 쿠메인, 혹은 먹어 보면 구미이 씨앗의 맛...

아름답고 조형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식물들이
사실은 무시무시하게 역동적이고 열정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존재라고 한다.

식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구의 유일한
생체가 이땅 한 자리에 서 있지만 지구를
정령화 하는 **육상가든**

- 4월 27일의 모든 꽃 -



배달고목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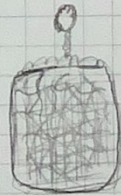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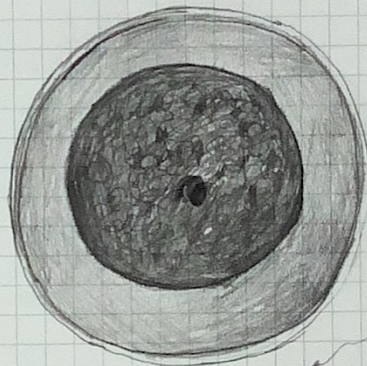
자은 새끼...

'들여다 보면 꽃은 온갖의 마음이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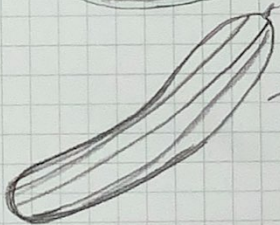
작업에 삼십여 배가 넘는 구멍이 다 뚫어 버려

라시 삼십 구멍...

삼십 배 수제미 씨앗이 섞여 들어 갔나
보다.



수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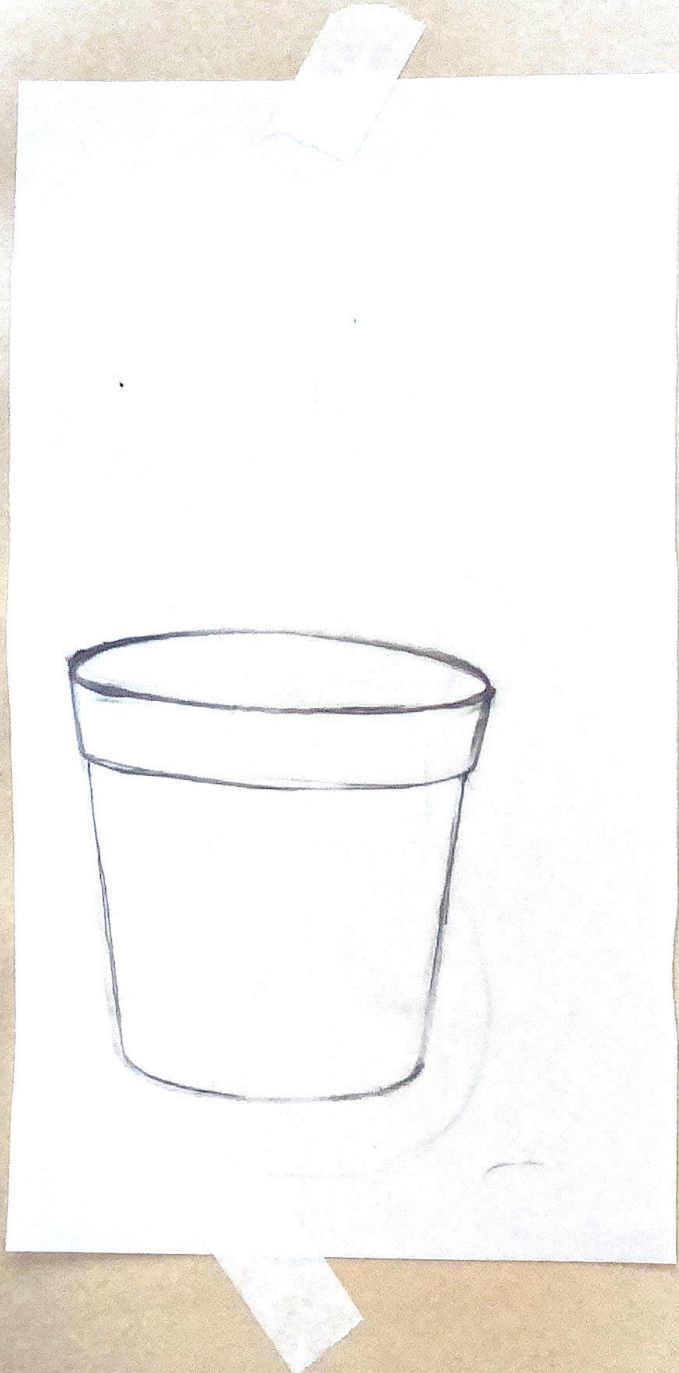


수제미

영양분

간 알레르기 증상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기 적당히
자라서 사용

210605



빈 화분

무슨 심어 볼까? 생각하다가

2년 이태권을 골라...



< 김삼 리스 루바 >

- 빛을 많이 볼수록 배양하기 일품이. 물은 다가가야 할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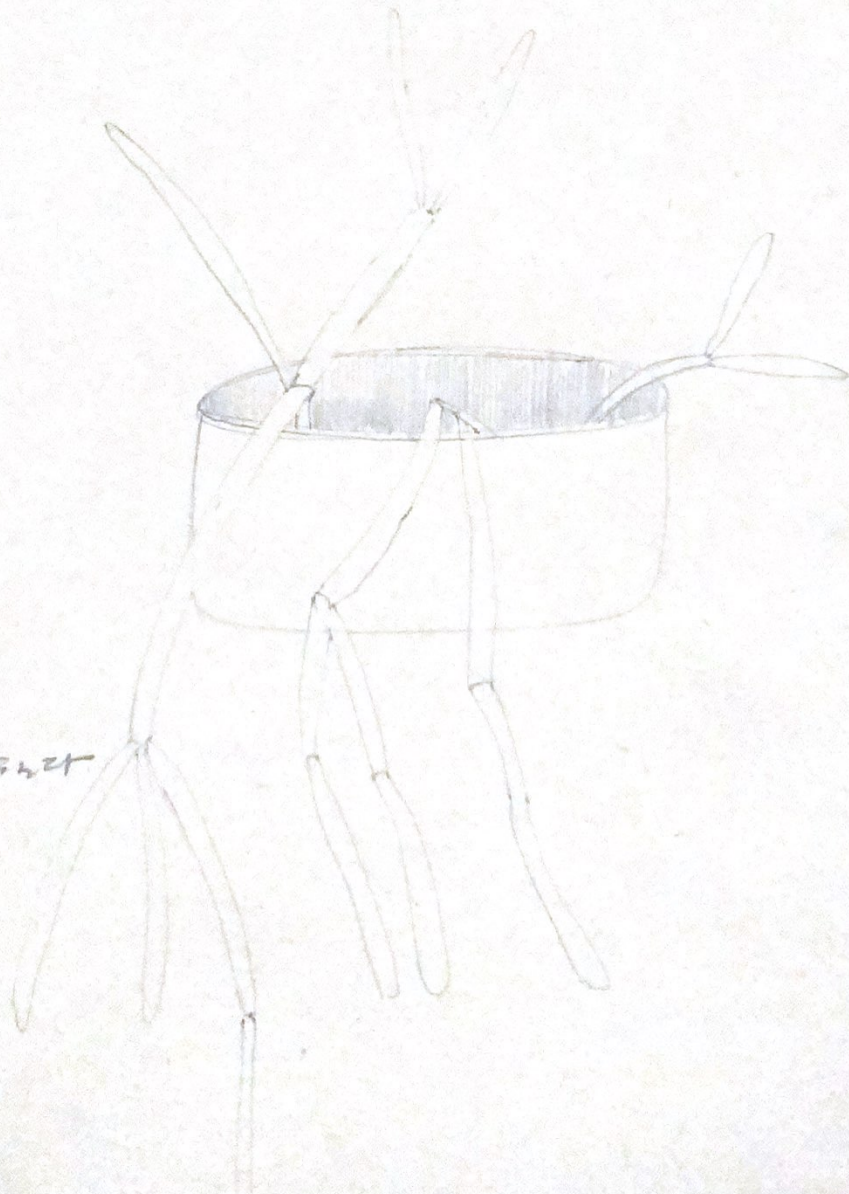
· 일주일에 한번, 물을 듬뿍 준다.

< 4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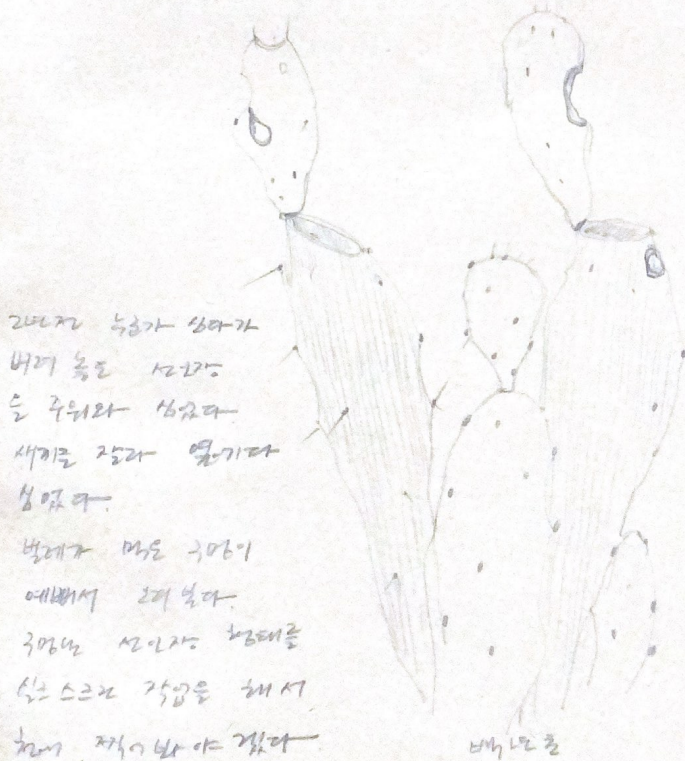
동생에게서 받은 빨아줄 아이, 눈이건 선이 참 예쁘다.

한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전과 웃음이 난다...

210615



· 꺾임리스 화이트
· 갈래 마-나 장
· 반쯤 2월의 꽃 줄기라



2106년 녹화 실험가
 배기 좋은 시기
 등 주위와 생김새
 새끼를 잘라 열기
 생김새.
 배기가 많은 구멍이
 에배서 열기
 구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작아져서
 결국 사라진다.

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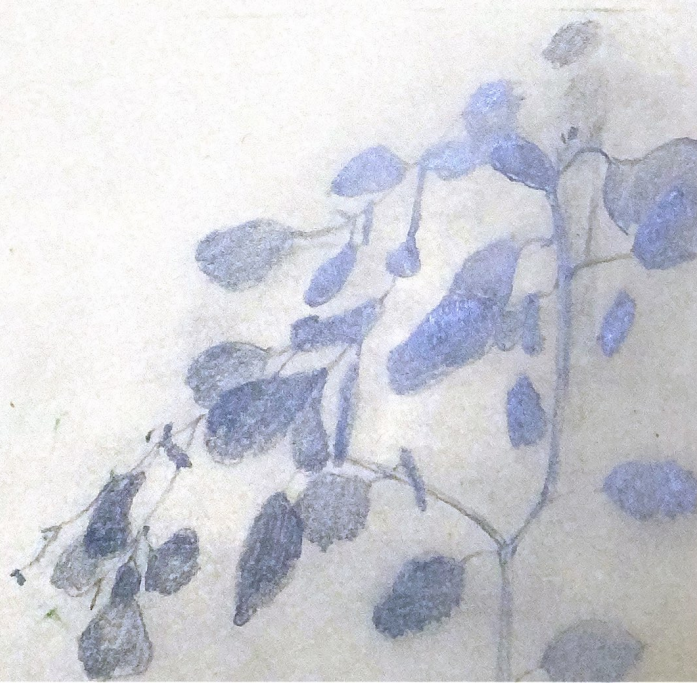
명칭 : Opuntia

햇빛이 잘드는 일찍이 때가 이 때가
 3~4월은 키가 1m 정도
 연한 새끼를 잘라
 흙에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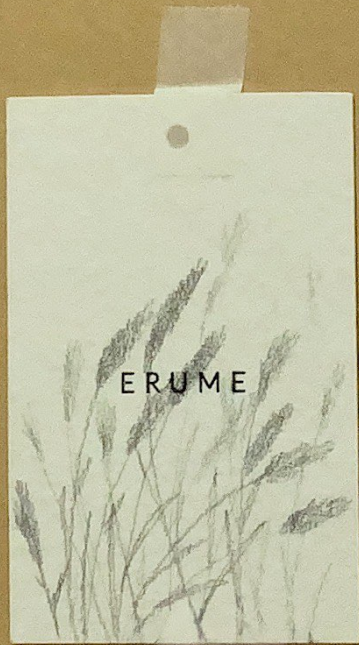
< 유근리트스 물리야 >

· 옥을 돌로 해 모양이 리듬 예쁘다.
· 과하지 않게, 구아하게 눈이 나 아이..
· 리듬가 리듬 낮은 리듬...
· 색은 예쁘다.

· 힘이 죽은 리듬이 리듬 모주기
· 리듬, 잘 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정답.



✓



ERUME

chapter 2
산책길에 만난 식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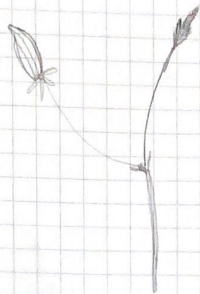


서민이들끼리



산지하라가

종 4192



괘이밥 열매

- 씨앗은 아삭한 특이한 맛이 있어서
사서 왔다.

- 열매가 터질때 바삭한 맛이 뒤집어
지면서 옅게 익은 감미로운 맛을
맛아내기 어렵다 된드려다.

- 씨앗이 원래 1cm가까이
날아가는거



식물명: 괘이밥

종류: 초본

이름: 관다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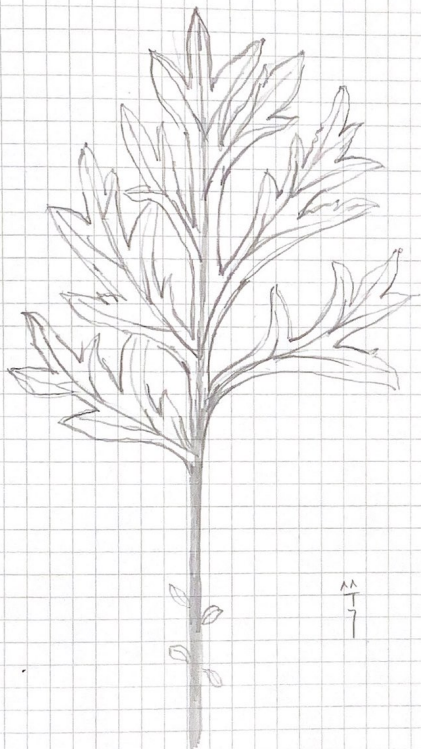
시유권

미식아산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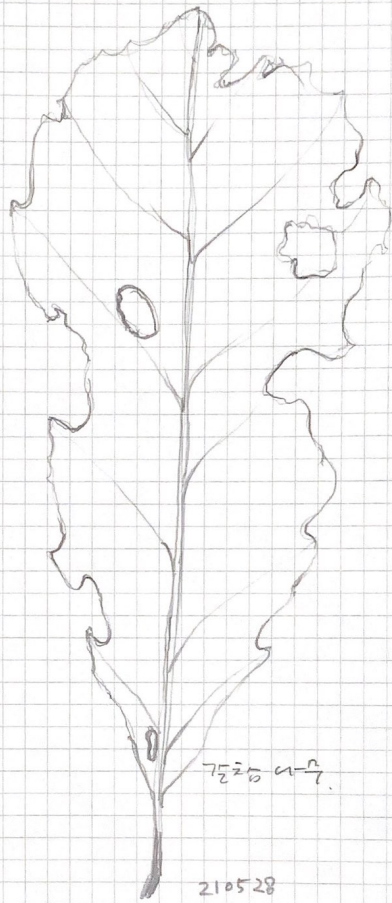
괘이밥꽃

자녀가 학교에 씨앗을

받은 것은 '자기 선물' 엿음



상
7



가을에 상

210528

상
물기 갈라가



바다의 공성들 잘 잡고 있다
작심 만 해마리기 흔들린다...
새가 해돋이



1961년 2월

이제야 겨우 봄이 되니.

210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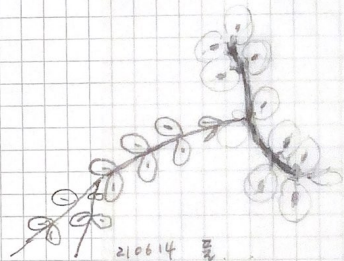
서나가가다

포구

농대리



이 나 가 다
서 나 가 다
포 구
농 대 리



리0614 품
양파나무

해해 상이 품
자갈매 품 유익 나무



감애이가 조금씩 이리저리
정신해 가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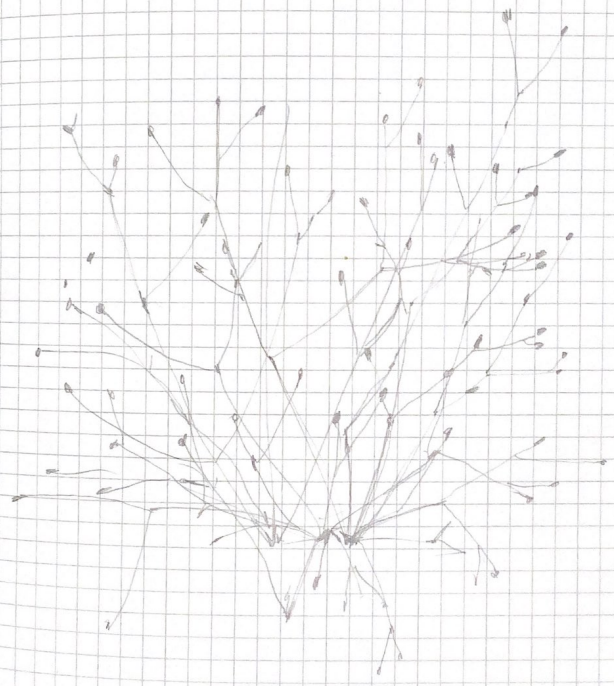
210612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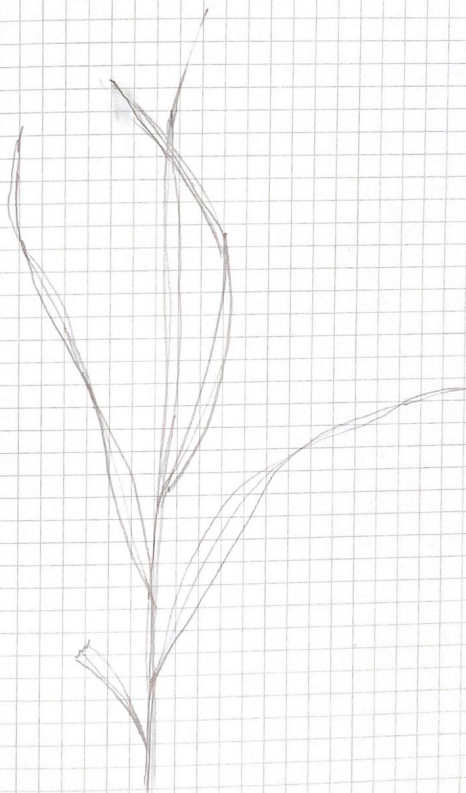
이리저리 꽃밭 한켠에 있는 풀
이름이 궁금해서 찾아 보았지만
알수가 없다.

210619



밤 아래 세상...
자신 품은... 주어진 모든 리산은 다해 살아나간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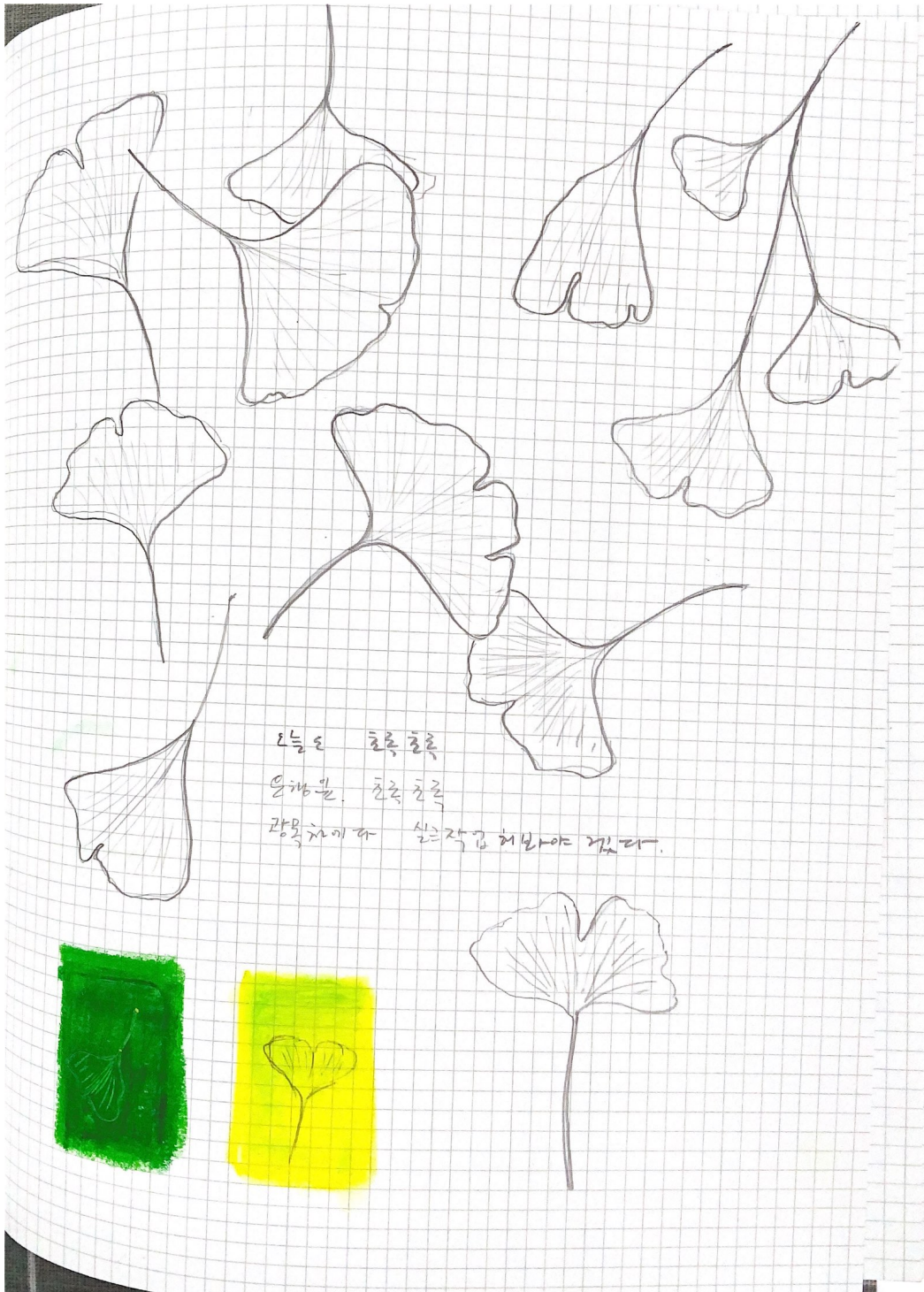


21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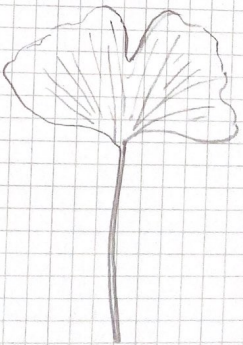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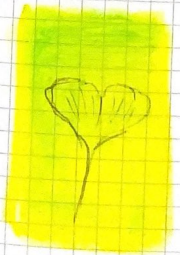
지속성이 시 가장 대된 나무
'살아 있는 화석'



은행나무 잎이



잎은 2 쪽 2쪽
등개골. 2쪽 2쪽
관목 가지에 실은 작금 허브야 있다.



지구촌 구하는 차등작 노트 끝맺음 이야기

'식물을 기우고 바라보는 일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다'

코로나 19로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상실감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과 꽃들의 단순하고 아름다운 선들
드러نگ과 식물 이야기와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면서

우울감과 상실감이 식물을 통해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두 달 가까이 지구노트를 기록하면서 힘들고 지친 일상에
나더 공간이 있는 식물과 산책길에서 만난 식물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갈 버팀음을 잡아 갈 수 있었다.

지구촌 구하는 노트는

Chapter 1 식물이 있는 공간

Chapter 2 산책길에서 만난 식물 이야기

2가지 chapter를 기록하였다.

Chapter 2 에서는 채. 향기등을 이용하여 드로잉하여
다양한 느낌을 표현해 보려 하였다.

작업은 기간 많은 것을 기록하지 못하였지만 지구노트를 계기로

식물드로잉 노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저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볼 계획이다.